

# 美 연준 또 자이언트스텝?… “국내 증시 추가상승 제한적”

금리 0.75%p 인상 가능성 우세  
증권가, 코스피 상승폭 제한 전망  
증시 과매도 정점 통과 기대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금융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11월 중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첫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61포인트(1.81%) 상승한 2335.22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의 반도체 중심 매수세가 이어지며 한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한 모습이다.

미 연준은 오는 2일(현지시간, 한국 시간 3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폐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88.2%,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1.61p(1.81%) 상승해 2335.22로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p(0.68%) 상승한 700.05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1원 하락한 1417.2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11.8%로 나타났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전히(미국 내) 기업의 구인 수요가 취업자 수보다 많아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택시장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통화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은 11월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11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2100~2300포인트를 제시했다.

삼성·신한투자증권 2100~2400포인트, KB증권 2189~2430포인트 등의 순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월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금리인상 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론화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공론화될 경우 증시에 단기 안도감이 유입될 것이라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단, 11월 중 반등이 지속되더라도 추가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자칫하면 통화정책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황에서 단기 간에 경기침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물가 부담과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유입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11월에는 증시가 과매도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3분기 실적 시즌의 선방 여부, 10월 물가 지표가 증시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당분간 주식보다는 채권시장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 위축, 물가 안정이 긴축 완화 기대로 이어져 주가 반등을 이끌 재료가 되지만 위험 보상 관점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이 유리하다”며 “국면 전환까지 주식 비중 축소, 채권 비중 확대, 대체 중립, 현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개인사업 사장님 잡아라”… 인뱅, 개인사업자대출 격돌

**토스뱅크** 무보증·무담보 최대 1억  
**케이뱅크** 연 3.42% 동일금리 적용  
**카카오뱅크** 통장·카드 포함 풀뱅킹

kakaobank  
Kbank  
toss bank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 개인사업자대출에 뛰어들었다. 3사 모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를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 3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 진출했다.

토스뱅크는 올해 2월 인뱅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5월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케이뱅크 또한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9월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차례로 출시했다.

이처럼 인뱅들이 개인사업자대출에 뛰어드는 이유는 대출 실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영업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은 최근 약 3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료로 내세웠다.

간편결제 토스의 결제내역과 통신비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6개 기관, 4300여 개의 변수, 527만 건 이상의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모형 ‘TSS(토스 스코어링 서비스)’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케이뱅크는 한국평가정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 했다. 또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3.42%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타 은행(4%대)와 비교하면 저렴한 금리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수신 상품(통장)과 지급결제(카드)까지 모두 포함한 풀뱅킹 서비스를 도입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 역시 면제다.

시장에서는 인뱅들의 개인사업자대출로 인해 시중은행들과 금리 경쟁을 벌이면서 좋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속에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우려가 여전한 만큼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로 파악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가 작지 않은 실정이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심사하는 인뱅들의 CSS 고도화가 개인사업자대출 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에 우량한 신용을 갖추고도 신용 등급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 시장이 악화된 상황은 인지하고 있어 인뱅들 역시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태원 합동분향소 조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 회장은 1일 오전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함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난 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헌화하고 묵념했다. 방명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너무 안타깝게 가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인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셨길 바라며 부상자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고로 국가에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 조기를 걸었다.

/양성운 기자 ysw@

## 애경그룹, 제주항공에 1098억 출자… 차세대 항공기 도입

내년 신기종 B737-8 40대 도입

애경그룹이 AK홀딩스를 통해 제주항공에 약 1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단행한다.

1일 AK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1097억7500만원을 출자할 예정이라 고 공시했다. 출자는 오는 14일이며

출자 목적물은 제주항공의 기명식 보통주 1375만6269주다.

AK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1300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다만 제주항공이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출자금도 일부 조정됐다.

AK홀딩스는 팬데믹 사태를 맞은 후 제주항공에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출자를 단행했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88억원, 884억원 규모 출자를 해 제주항공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AK홀딩스는 이번 출자는 제주항공의 차세대 기단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신기종인 B737-8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항후 운항거리와 운항

시간이 확대될 뿐 아니라, 높은 연료 효율의 항공기 운용으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웠던 만큼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교환사채는 1000억원 규모를 예상했으나 차세대 기단 도입 후 운항 거리 확대에 따른 신규 노선 개척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예상을 웃도는 기관 투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